

제주사회복지신문

>2017년 12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22호



“김장으로 따뜻한 나눔 전해요”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주최하고 신한금융그룹이 후원하는 ‘2017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가 지난달 25일 제주동중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담근 김치 900포기는 도내 저소득 가정, 복지관 등에 전달됐다.

취업 취약계층 사회적 관심 필요

보장협의체 욕구조사

경력단절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 시설수급자 등 도내 취업 취약계층의 절반 이상은 취업 활성화를 위한 주제로 국가 또는 지자체를 꼽았다.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활고용분과는 지난 6~7월 제주도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 취약계층 420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취업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며, 원하는 일자리는 사회복지·종교 관련 분야가 인기가 높았다.

결국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 욕구가 실제 취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종교 관련 일자리 개발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활고용분과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맞춤형 취업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

제주도 내년 사회복지예산 1조 돌파

관련 예산안 도의회 제출... 사회적 약자 복지서비스 확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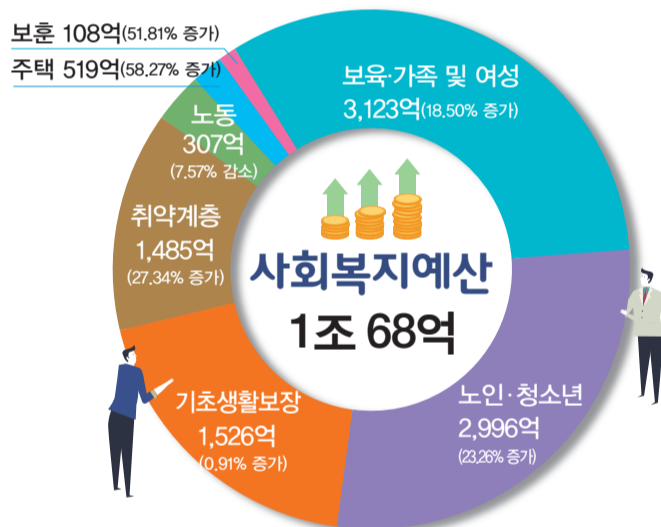
내년 제주도 사회복지예산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11일 2018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4조4493억 원 대비 13.05%(5804억 원) 증가한 5조297억 원으로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삶의 행복도를 높이는 사회복지, 지속성장, 문화, 생활환경, 교통·주차, 전략산업 인프라 구축 등 제주도민 모두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배분됐다.

특히, 소외계층,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확대된다.

도는 내년도 예산의 20.02%인 1조68억원을 사회복지예산으로 반영했다.



올해 예산 8478억 원보다 무려 18.74%(1589억 원)가 늘어난 것으로, 도정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 한 것이다.

세목별로는 보육·가족 및 여성 예산이 3123억 원 (18.50% 증가)으로 가장 많

이 책정됐으며, 노인·청소년 2996억 원(23.26% 증가), 기초생활보장 1526억 원(0.91% 증가), 취업계층 지원 1485억 원(27.34% 증가)이 뒤를 이었다.

또, 노동 307억 원(7.75%

감소), 보훈 108억 원(51.81% 증가), 주택 519억 원(58.27% 증가) 등도 사회복지예산에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복지예산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도 세입 예산은 자체재원 1조7081억 원, 중앙이전재원 2조599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226억 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16일까지 제주도의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확정·고시하게 된다.

☞ 관련기사 2면

지면소개

- 종합 2~3면
아동수당 신설·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강화
- 사회복지소식 4~5면
“주거복지 지원계획 세분화 필요
- 오피니언 6면
시론·칼럼·기고
- 기획 7면
제주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12)



SSN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고치환 외 임직원 일동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예산 무엇을 담았나

아동수당 신설·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강화

제주도는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내년도 전 체 예산의 20.02%인 1조68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키로 했다. 도정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한 사회복지예산이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쓰일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설

도는 어린이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5세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수당(전체 211억 원)을 신설키로 했다. 또 하루 500원의 어린이

집 아동 간식비가 지원되며, 아동급식단가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25% 늘렸다.

아동복지 교사의 교통비도 월 10만원씩 지원되며,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은 월 5만원씩 지급된다. 장애아보육 치료사 처우개선

비도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아동복지 교사 교통비 및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등이 새롭게 신설되는 등 어린이 양육환경과 아동 보호시설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도정의 의지가 반영됐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도는 제주지역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신축에 30억 원,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에 72억 원 각각 반영키로 했다.

또 도내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3곳을 신·증축하는데 52억 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경로당 14곳

신·증축에도 64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여성복지 공공 복합건물부지 매입 및 신축에 61억 원을 책정하는 등 각 분야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도는 총 4억 원의 증장년 이상 고독사 예방 예산을 신설했으며, 장애인 연금도 1

인당 25만원으로 확대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도 대폭 상향된다. 첫째아이 출산 시 종전 10만원보다 400% 증가한 50만원을 지원받으며, 둘째아이부터는 200만원을 행정당국으로부터

터 받게 된다.

이외에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청사 매입 및 리모델링 52억 원, 기초연금 1535억 원, 생계급여 568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87억 원, 주거급여 159억 원 등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됐다.

“지역 발전방안 우리 스스로 찾아요”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발전 원탁토론회 개최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과 동새마을부녀회(회장 고영순), 동장애인지원협의회(회장 변정자), 동통장협의회(회장 김명석), 아라주는 아라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위원회(위원장 김창석)는 지난 달 20일 JDC에서 주민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 탁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토론회는 1부 지역의 현안 2부 해결방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1부에서는 아라동 지역현안으로 교육 및 문화시설의 부족, 주차 공간과 불법주차, 클린하우스 쓰레기 분리수거 의식부족, 목욕탕 등 편의시설 부족, 차량증가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 등을

꼽았다.

또 과다 개발에 따른 주택공실 우려 및 자연환경 파괴, 비싼 집값 등도 마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1부 지역현안을 토대로 진행된 2부에서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기존 문화 복지시설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공공 도서관 필요, 건축 허가시 세대수에 맞는 주차시설 설치, 낮 시간대 아파트 주차장 개방 등의 해결책이 나왔다.

또 클린하우스 주변 환경 개선, 재활용품 유형별 클린하우스 크기 조정, 인도나 차도에 바닥 LED 등 설치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제주 장년층 고독사 예방 시동

강익자 의원 지난달 2일 조례안 발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년층의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추진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익자 제주도의회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일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고독사 현황 및 통계 구축, 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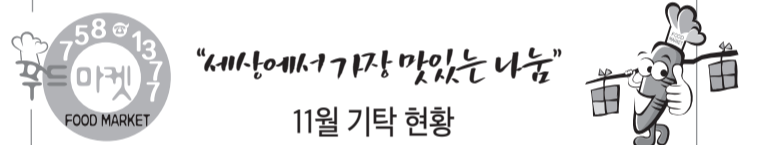
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복지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민간

복지 지원, 장례서비스 지원 등을 수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년층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익자 의원은 “송과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와 지자체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종 복지제도와 정책은 장년층 1인 가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며 “장년층 1인 가구가 우리사회의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 ▲금강축산유통=축산물125kg ▲유진상사=오뚜기 식품3,147개 ▲금강수산유통=생선50kg ▲김치원=김치20kg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309모 ▲던킨도너츠 제주외도점=도너츠66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3,378개 ▲모양=제과류88봉 ▲미인빵=빵103봉 ▲빠라빠빵=빵103봉 ▲신송식품=장류136kg ▲신화유통=장류36kg ▲아라파파=떡186개 ▲영화식품=장류9kg ▲자연드림 이도점=빵307봉 ▲제주보리촌=보리빵600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주스200개 ▲갯어클락=빵19봉 ▲파라바게트 제주대유대림점=빵120봉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7년 10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390,000	820,000
난치병환아후원	50,000	0
자원봉사후원	375,000	375,000
복지사업후원	985,000	228,000
푸드마켓후원	3,255,000	874,83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주사회복지신문 발행안내 www.jebukji.net

우) 633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예전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 1동 1112-1)

발행인: 고치환 편집인: 고봉식 편집위원: 김길웅·김범훈·한영조

■ 창간일: 2007년 9월 1일

■ 등록번호: 제주라 01010

■ 편집위원실: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디자인리더제주

취업취약계층 10명중 7명 “일하고 싶다”

전문기관 통한 구직 19.8%불과...접근성 강화 과제

제주시 지역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보건복지 및 돌봄 서비스 등 사회적 보장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활고용분과가 실시한 제주시지역 취업취약계층 욕구조사에 따르면 '취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299명(71.2%)이 '있다'고 답했으며, '없다'는 응답은 119명(28.3%)에 그쳤다.

취업을 원하는 요인으로는 '생활비 마련'이 287명(68.3%)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아실현 28명(6.7%), 사회활동 27명(6.4%), 건강유지

및 여가시간 활용 각각 11명(2.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취업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63명(52.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가족을 돌보려고' 20명(16.8%), '취업준비가 되지 않아서' 17명(14.3%),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11명(9.2%) 순이었다.

또 취업 희망업종으로는 사회복지·종교관련이 117명(27.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음식 서비스관련이 58명(13.8%), 경비·청소관련 47명(11.2%), 운전·운송관련 25명(6.0%), 경영·회계관련 23명(5.5%), 미용 숙박·여행·오락·스포츠관련 23명(5.5%) 등으로 조사됐다.

일 자리를 구하는 방법은 전체 응답자의 44.3%인 186명이 '아는 사람의 소개'를 선택했다.

지역자활센터, 고용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한 구직은 전체의 19.8%인 83명에 불과해 공공기관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취업 취약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취업 정보 제공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주체로는 전체의 37.1%인 156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꼽았으며, 본인 또는 가족 140명(33.3%), 고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100명(23.8%), 기업체 20명(4.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저소득층 학생 공부방 지원

도교육청·대한적십자사제주도지사 협약

제주도교육청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는 지난달 8일 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저소득가정 학생 공부방(Hope Up)만들기 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공부방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사업은 가정형편상 학습공간이 없는 학생에게 '나만의 공부방'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해 주기 위해 마련됐

다. 올해 사업 대상은 학생 10명이다.

사업은 김문자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이 이날 도교육청을 방문해 기부한 5000만원으로 추진된다.

또 공부방 공간 조성 후 학생이 필요로 하는 학습 도구를 지원하고 적십자사 봉사회 연계를 통한 학습·정서 멘토링, 지속 돌봄 등을 통해 제주형 교육복지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도외지역 우수 기부식품제공사업장 견학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광역푸드뱅크(대표 고치환)는 지난달 10~11일 도 광역푸드뱅크 운영위원 및 도내 기부식품제공사업 실무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외지역 우수 기부식품제공사업장 견학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견학은 파주희망기초푸드뱅크마켓과 경기도 광역푸드뱅크 등 도외지역 우수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



됐다. 참가자들은 도외우수사업장의 기부식품 제공과정, 관리 및 운영시스템 비교

분석을 통해 앞으로 제주도 광역푸드뱅크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광역푸드뱅크-시와월드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광역푸드뱅크와 (주)시와월드(대표 우영진)가 16일 협의회 바람소리홀에서 도내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시와월드의 지역기반 캐릭터인 꼬마하루방 '제돌



이'를 제주광역푸드뱅크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푸드뱅크 사업 홍보 및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사회복지자원봉사자 인증관리사업 실무자 연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달 10~11일 서울·인천지역

에서 2017 사회복지자원봉사자 인증관리사업 실무자 연수를 진행했다<사진>.



이번 연수는 인증관리요원 및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 견학과 재충전을 위한 문화활동 시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연수 참가자들은 다양한 VMS 관련 사항을 직접 물어보고 답하는 시간을 통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궁금증을 해소했다.

동광초 이웃사랑 물품 기부



동광초등학교(교장 부태준) 4학년 학생 및 교사 일동은 지난달 3일 동광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운영하는 제주광역푸드뱅크에 생활용품 등 240만원 상당 이웃사랑 물품을 기부했다<사진>.

이번 이웃사랑 물품 기부는 제주광역푸드뱅크 'jeju 푸드뱅크 식품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참여한 '기부데이'와 동광초등학교 '꿈, 끼 탐색주간'을 맞아 4학년 학생이 '사랑나눔 장터'를 운영해 모은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주거복지 지원계획 세분화 필요”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복지공동체포럼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와 제주복지공동체포럼(대표의원 유진의)은 지난 10월31일 도의회에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고승한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노인들은 과거에 자기집을 소유해 주거복지에 대한 문제가 오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오래전에 건축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주택내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가구에 대

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고현수 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는 “제주도의 주거복지 종합계획은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물량확보에 중심을 두고 있다.”며 “저소득층인 소득분위 4분위 이하가 아닌 5~6분위에 초

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주거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며 “생애주기별, 장애유무, 지역별 주택유형 등 주거복지 지원 계획을 세분화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 노숙인들이 선보이는 아름다운 하모니

제주지역 노숙인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자활단계 노숙인 등으로 구성된 제주시희망원(원장 김숙희) ‘그루터기중창단’은 지난 10월27~28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27회 탐라합창제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사진>

이날 그루터기중창단은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느영나영’과 정겨운 농촌 풍경을 그린 ‘산촌’을 노래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루터기중창단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



원을 받아 매주 1회 중창 레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제주사회복지합창대회 동상, 제25·26회 탐라합창제 2년 연속 우수상, 제6회 장애인예술제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특히 도내 축하공연을 통해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그루터기중창단은 노숙인의 건전한 문화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2014년에 결성됐다.

나눔실천 유공자 장관표창 영예

혼디학교·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온 유공자들이 정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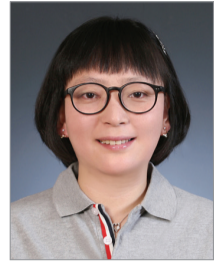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9일 서울 그랜드힐컨벤션홀에서 ‘2017 전국사회복지 나눔대회’를 열고 인적나눔과 물적나눔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제주에서는 푸드뱅크 부문에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형석)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최근 4년간 총 7775만원 상당의 식품을 제주광역푸드뱅크 및 사랑나눔푸드마켓에 정기 기부하는 등 물적나눔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개인부분에는 김현미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팀장이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회복지자원봉사 부문에는 청소년혼디학교(대표 송상현)가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를 지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받았고 흥나나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관리팀장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을 받았다.



▲ 김현미 팀장



▲ 흥나나 팀장



▲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 청소년 혼디학교

김은영 어울림터 근로인 장관 표창

김은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직업재활 시설 어울림터 근로인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지난 10월30일 서울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제9회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체험 수기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 근로인은 2006년 어울림터에 처음 입소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풀어내 최우수상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형훈 위원 제주건축문화인상 선정



김형훈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광역푸드뱅크 운영위원장(미디어제주 편집국장)이 제주건축문화인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제주건축문화축제 조직

위원회(위원장 박철민)는 지난달 3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2017 제주 건축문화축제’ 개막식을 열고 제주건축문화인상 및 건축문화대상 등을 시상했다<사진>

김 위원은 제민일보 재직 당시 ‘제주의 건축’을 100여 회에 걸쳐 연재했고, 미디어제주 기획특집 ‘건축가가 말하는 건축’을 꾸준히 보도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았다.

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 자원봉사자 모집

‘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대표 이경미)’은 ‘소년, 별을 품다’ 프로젝트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년, 별을 품다’ 프로젝트는 소외 청소년들에게 천연 면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원봉사 신청은 함께하는 그날(thedayinjeju@naver.com / 711-8291)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 접수 안내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도내 사회복지소식 보도자료를 매달 22일까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게시판 “알림” - 보도자료’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소/식/마/당

청소년 감동캠프 진행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과 두란노아버지학교제주지부(지부장 강영수)는 제주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지난 10월28일 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17 청소년 감동캠프'를 개최했다.

이날 캠프에는 제주 시내 초등학교생 및 학부모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억의 포토존, 사랑의 글쓰기, 세족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발달장애인 권리체계 구축



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고현수)과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강석봉)는 지난 10월30일 제주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제주지역 위기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와 권익옹호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실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가을소풍 행사 실시



제주셋별라이온스클럽(회장 백수정) 자원봉사자들은 지난달 4일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 거주 장애인들과 함께 가을 소풍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가을 소풍은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한 관광지 '유리의 성'을 둘러보고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희망가족화합한마당 족구대회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성자)는 지난 10월26일 제주희망원운동장에서 노숙인과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4회 희망가족화합한마당 족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족구대회는 그동안 진행된 족구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인들의 증진된 체력과 족구실력을 발휘하고 노숙인들에 대한 편견을 지우기 위해 마련됐다.

비전 선포식 개최



제주애덕의집(원장 현성훈)은 지난 10월30일 애덕의집에서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부터 3년간 진행해 나갈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을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모델 구축'이라는 비전과 이에 따른 핵심추진사업이 수립됐다. 애덕의집은 2011년부터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후원물품 및 후원금 전달식



(사)월드프렌즈(이사장 김성용)는 지난달 8일 제주시에 위치한 혜정원 아가의집(사무국장 강정민)을 찾아 후원물품 및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김성용 월드프렌즈 이사장은 "일시적인 후원이 아닌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 어울림 축제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두호)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는 지난달 28일 해녀박물관 야외에서 '제8회 다문화 어울림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는 우리나라를 소개합니다·전통의상 체험·다문화 음식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하트프션 나누기, 바람개비 돌리기, 손수건과 에코백 그림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제주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 폐막



(사)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회장 양용석)와 제주DPI 부설 장애인영상미디어센터는 지난달 3~5일 국립제주박물관에서 '2017 제주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영화제는 국내작 11편과 국외작 7편 총 18편의 영화가 상영됐다. 경쟁부문 출품작 7편을 대상으로 선정한 관객상에는 대상이자 폐막작인 '잠물'이 선정됐다.

이웃사랑 후원물품 전달



서귀포새마을금고(이사장 원두원)는 지난달 16일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정혜재활원을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서귀포새마을금고는 매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원두원 이사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김운영)은 지난달 15일 서귀포시 중앙로터리에서 서귀포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을 진행했다.

11월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 된 사진을 전시하고 아동학대 신고전화(112)를 알리는 홍보물과 리플릿도 배포했다.

아동·청소년 심리정서 사업 운영



공동생활가정인 제주몽생이그룹홈(대표자 김완숙)은 1월부터 12월까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으로 그룹홈 아이들 대상 아동·청소년 심리정서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심리정서지원사업은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심리치료를 실시, 아이들의 불안요소 해소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희망나래활동센터 이전



희망나래활동센터(원장 박인항)는 지난 10월 이용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원활한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제주시 중앙로로 센터를 이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 장애인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 지역사회일원으로 참여하는 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론

그 도서관에 피는 동양의 멋

매주 목요일은 도서관의 그윽한 묵향 속에 서예를 학습하는 날이다. 도서관은 독서만 하는 공간으로 생각하지만, 제주도서관은 좀 다르다.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된 문화공간이 있다. 문학, 예술인들의 학습, 강좌는 물론 서예까지 할 수 있는 다목적 기능의 개방적 지역사회도서관이다.

이곳에 온 사람들은 남녀노소의 차이는 있지만 서예동호인들이다. 목객들이 글자 한 획, 한 획을 그어 내려가는 모습이 무척 진지하다. 서예 하

주민 위한 문화공간

는 목적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서예를 좋아하는 공통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소중한 인연이다.

서예는 한자의 해서, 행서, 초서와 한글의 판본체, 궁체, 문인화로 대별된다. 궁체는 정자체와 반흘림체, 진흘림체 등인데 서체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서예는 학문의 영역임과 동시에 예술의 영역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전승되는 문학과는 달리 은은한 묵향 속에 써내려가는 붓글씨는 동양정신의 표현이며 동양문화의 멋이다.

나는 공직퇴직 후 무직연금 생활자이다. 요일 구분 없이 밋밋한 하루를 보내는 게 일상이다. 낚시가 유일한 취미이며 손자를 돌보는 것이 일상이다. 삶의 보람을 찾아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적성에 맞는 것은 문학과 서예라고 결론지었다. 문학 활동은 계속 하고 있다. 서예는 좀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 오랫동안 망설이다 다시 시작하려던 참에, 마침 주위의 권유를 받아, 늦깎이로 서예활동을 하게 되었다. 내면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필 등 글쓰기는 계속했으나 서예는 몰두하지 못했다. 과거 취미에 그치면서 붓을 멀리한 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다. 퇴직하면 다시 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 게으르고 의지가 약한 탓이다.

이제 제주도서관에서 훌륭한 선생님의 지도로 서예를 학습하고 있다. 좀 일찍 시작했어야 하는 후회도 있으나 시작이 반이라고 애써 자위한다. 이 곳, 묵향에 심취한 어르신들이 진지한 글쓰기 모습을 보

정년 없는 학습

면서, 학습에는 정년이 없음을 느낀다. 필력에 능통해진 선배들의 글 솜씨를 보면 내가 작아지지만, 열심히 하면 나도 가능하리라 되뇌며 굳건한 의지를 다진다. 조용하고 아늑한 도서관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서예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보람되고 즐겁다.



문익순
(전)제주4·3사업소장

기고

바람 글로벌어린이예술단 다문화 편견 바꾸다



김정림
제주글로벌센터 사무처장

2016년 4월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내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968명으로 전년대비 27.8%나 증가했다고 한다.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언어발달에 장애를 겪고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는 편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시선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이뤄진 바람글로벌어린이예술단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6년 11월에 결성된 바람글로벌어린이예술단은 엄마의 국적이 다르고 재학중인 학교, 나이, 성별이 서로 다른 10여명의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구성됐다.

아이들은 핸드벨, 첼로, 바이올린, 플룻,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배우고 있다.

1년 동안 아이들은 매주 수요일, 일요일마다 음악, 핸드벨, 바이올린을 배워 매달 셋째주 일요일 다문화가정 부모님들과 함께 요양원에 봉사활동을 간다.

예술단은 핸드벨 공연, 노래, 춤으로 어르신들의 기쁨과 행복을 독차지하고 있다. 올해 어버이날에도 요양원들에 초대받아 의미있는 공연봉사 활동을 진행했고 현재는 도내 학교 각종 행사에 초대받아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특히 이주여성 엄마들은 음악과 악기를 배우며 소심하고 말수가 적던 아이들이 밝아지고 또래 아이들과 소통, 어울림도 잘해 꿈이 생겼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상곤 바람글로벌어린이예술단 단장 역시 다문화가정 가정이다.

오명찬 제주글로벌센터 센터장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숨은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주고 장점을 살려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엄마 나라 모국어 등 3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프로그램 등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

칼럼

숲과 함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1: “사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다. 점점 무기력해지면서 매사에 자신이 없고 우울한 상태가 지속됐다. 뭐가 문제인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통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어느 날 무작정 뛰쳐나왔다. 가까운 공원·숲·산·들·강을 가리지 않고 걸었다. 퐁퐁 열어붙었던 마음이 신기하게 풀리기 시작했다.”

#2: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 직장에서는 참고 참았지만 집에서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곧바로 쏘아붙이기 일쑤였다. 돌아서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 후회를 했다. 마음을 고쳐먹고 주말마다 휴양림을 찾았다. 짜증나거나 피곤했던 마음이 소리 없이 사라졌다.”

위의 사례 중에 전자는 어느 40대 여성이 오랜 기간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이를 극복한 사례이며 후자는 부모와 함께 사는 30대 미혼 직장인이 무기력증을 겪다 극복한 이야기이다. 이처럼 사람이 사는 사회는 직선 환경에 노출돼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드러웠던 마음마저 딱딱해지기 쉽다. 나와 나 가릴 것 없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네모상자 속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대부분 네모상자 속에서 생활

실제 우리가 사는 공간을 들여다보면 직각으로 둘러싸인 네모상자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는 집이 그렇고 엘리베이터가 그렇다. 직선으로 뻗은 길이 그렇고 사무실 공간이 그렇고 책상과 책이 그렇고 TV가 그렇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곳에서 잠자고 먹고 일하고 논다. 그런데 이런 네모 난 직선환경은 경쟁조건을 갖고 있다. 끊임없이 직선으로 내달리도록 한다. 그러는 사이 몸은 지칠 대로 지쳐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삶이 옳은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조금만 생각하면 보다 아름답게 사는 길이 있다. 그곳은 바로 오름과 숲이다. 부드러운 곡선환경으로 가득 찬 그곳은 심신을 편안하게 해준다. 직선환경 생활로 굳어진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준다. 그래서 숲은 모든 것을 치유해주는 종합병원이다.

앞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직선환경에 있을 때는 짜증이 자주 났지만 이를 해소시켜준 것은 숲이며 자연이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오름이나 숲을 찾아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풀어주는 여유를 가진다면 이 세상은 한결 부드러운 감성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한영조
산림치유지도사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

제주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 ⑫ 끝

이동한(66)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사장



“제가 살고 있는 삶은 어머니 삶을 대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춘강, 전국적 복지 브랜드로 ‘우뚛’

익명성의 시대에 오히려 자신의 이름이나 아호를 내걸고 무엇인가 하는 이들에게는 신뢰가 느껴진다. 자신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이에 더해 자신의 삶은 곧 어머니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하루 하루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의 모습에서는 경외감마저 느껴진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제주지역 장애인복지는 물론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리더로서 존경받는 사회복지법인 춘강의 이동한 이사장을 ‘제주 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 열 두 번째 인물로 만나 보았다.

있는 제가 그 기적의 증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이동한 이사장에 대한 기억으로 뚜렷이 남는 장면이다.



▲ 1986년 제주에서 처음 시도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자동기범도민걷기대회 모습.

5남 1녀 중 막내였던 그에게 소아마비라는 진단이 내려진 건 그가 두 살 되던 해였다. 이듬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남매의 삶은 온전히 어머니의 어깨에 짐 지워지게 되었다. 그 와중에 막내 아들의 장애는 어머니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로서 다가왔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은 어머니의 삶을 대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러했듯 그의 어머니 또한 그의 삶의 큰 이유로 자리 잡았다.

지난 11월 24일은 사회복지법인 춘강이 30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 당시 이동한 이사장의 나이는 36세. 이미 전국 최초의 장애인단체연합조직으로서 당시 제주지역 3개 장애인단체(맹인자활복지회, 농아복지회, 지체장애자복지회)를 연합한 제주장애자연합복지회(창립 1987. 3. 31)의 초대 회장직을 맡고 있던 그에게 있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본격적인 장애인 복지사업에 들어서는 신호탄이 되었다.

사회복지법인 춘강의 첫 과제는 ‘제주도장애자복지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갈등과 반목이라는 장애물에 좌초될 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결국 춘강이 부지(3305㎡)와

건립기금을 출연하면서 제주도 1호 장애인복지관이 탄생하기에 이른다.

이 후, 춘강은 서귀포시에 부지(3306㎡)를 기부체납하여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개관 1999. 7)하고 북제주군분관을 개관(1999. 12)하여 지역별로 균형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더해 역시 제주도 1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춘강장애인근로센터’와(1990. 11), ‘어울림터’ (2002. 12)를 개원하고 ‘제주재활의원’ (현 ‘제주춘강의원’)을 개원(1994. 4)하게 된다. 이로써 장애인복지의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는 사회·직업·의료 재활의 3박자가 고루 갖춰진 제주지역 장애인복지를 위한 큰 그림을 완성하게 된다. 그렇게 30년을 흐르고 흐른 춘강은 어느덧 제주지역을 대표하며 전국적인 복지브랜드로 자리매김 되었다.



▲ 2014년 에티오피아 달라지역 장애아동들을 위한 의수 지원식 모습.

혼자서 다니기에도 무리가 있는 그가 비장애인 못지 않은 활동력으로 많은 직함을 갖고 활동을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언제나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시선과 발걸음은 늘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그들의 삶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결국 그런 그의 삶은 2012년 ‘호암상’ (사회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되며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어머니 등에 업혀 병원과 학교를 다니며 꿈을 키워 온 섬 소년이 명망있는 큰 상을 받게 된 것이다.

수상 자체도 놀랍고 반가운 일이었지만 그가 또 한번 우리 사회를 놀라게 하는 일이 생긴다. 상금 3억 원의 세금으로 납부된 금액마저 자비로 채워 3억 원 전액을 아프리카 대륙 저개발국가인 에티오피아 장애



▲ 2012년 호암상 시상식에 참여한 이동한 이사장(아래줄 왼쪽 두번째).

인을 위한 의수족제작 사업비로 기부한 것. 이 사업은 지금 미얀마에 의수족 제작 공장을 설립하여 현지인이 직접 의수족 제작기술을 익혀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자기 삶의 철학이 분명한 그의 처신은 역시 다들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사례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그의 어머니가 그러했듯 그 역시 독실한 불교신자이다. ‘춘강’이라는 아호도 묵담 대종사가 불제자인 그에게 내린 법호이다. 자비로써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 주고 즐거움을 주는 일, 즉 ‘발고여락’의 정신을 실천한 삶이 그의 어머니의 삶이었고 그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 백혈병·소아암 환아 가족들에게 그가 전한 메시지처럼 그의 삶의 흔적이 사랑으로 이룬 기적의 증거가 되기를 바란다.

정리 · 김성건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애독해 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 기사의 전문은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내 제주지역복지뉴스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1989년 제주도장애자종합복지회관 개관 당시 가족사진 이동한 이사장(오른쪽).

시설탐방

(92)행복한쉼터

“눈짓·몸짓·표정 하나하나 살핍니다”

중증뇌병변장애인 보금자리 역할 ‘톡톡’



▲ 행복한쉼터는 중증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에 든든한 보금자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중증뇌병변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중증뇌병변장애인들의 든든한 보금자리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중증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행복한쉼터(원장 김영미)’다.

행복한쉼터는 2011년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갈 곳이 없는 중증뇌병변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요청으로 설립됐다.

처음에는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10명이었지만 점점 늘어나면서 현재는 14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원래 정원은 15명이지만 한 자리는 특수학교 방학기간에 이용하는 장애인과 위급한 상황에 시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비워놓고 있다.

행복한쉼터 이용 장애인들은 모

두 1대1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의사소통이 힘들거나 몸을 가눌 수 없는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눈짓, 몸짓, 표정 등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일상생활 영위 도움 개인시간 없었던 부모에게 ‘시간적 여유’ 선사

또 장애인들을 위해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감각 일깨우기’다. 신체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이 가능한 많은 감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오전에는 음악, 미술, 요리, 원예, 문화체험, 신체활동 등 최대한 많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오후에는 시설 장애인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쉬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휴식 시간을 주고, 작업치료가 필요로 한 사람에게는 작업치료를 해주거나 시설 장애인들이 좋아하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개별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외출이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일주일에 2~3회는 애월, 용두암, 도두봉 등을 산책하는 등 외부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이러한 행복한쉼터의 노력은 장애인들에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했다.

김 원장은 “처음과 달리 시설에 오는 것이 좋다고 말해주는 장애인들이 생기고 말을 못하는 장애인들이 표정과 몸짓을 통해 이곳에 오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

었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설은 장애인들의 보호를 위해 설립됐지만 학부모들을 위한 곳이기도 하다.

항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자녀를 돌보느라 개인시간이 없었던 부모들에게도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제주도내 중증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이곳 뿐”이라며 “현재 시설에 들어오지 못한 대기자들도 많이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설이 생겨나서 중증뇌병변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승지 기자」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47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인생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80세의 A할머니는 한 평생을 이름 없이 살아왔다. 분명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등록된 신분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이

름조차 갖지 못한 상태로 노숙생활을 하며 살았다. A할머니에게는 신체, 지체 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아무리 아파도 병원 치료를 받는 일이 쉽지 않았다.

할머니에게는 자녀가 있긴 했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병원 치료가 절실해진 시점까지도 법적인 신분을 찾아드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

요양병원에 입소하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자녀들은 이제라도 할머니를 위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용어부터 이름이 낯설다.

◆ 성분 및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신청

우선 A할머니는 법원으로부터 성과 본 창설 허가를 받아 이를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다시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받아 지자체에 창설 신고를 하여야 법적으로 신분이 부여된다. 이러한 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 가정법

원에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본인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신분이기 때문에 이 심판 청구를 위한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적인 신분을 만든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을 맡은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한 철저한 확인을 거쳐 신분 관계를 창설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보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이나 성장에 관련된 진술서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성과 본 및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바탕으로 A할

머니의 신분관계서류 창설이 완료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해지고 건강보험 가입 및 요양병원 입소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 신분관계서류 창설 및 사회 복지서비스 혜택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한 신분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A할머니와 같은 사례의 해결은 꼭 필요하다.

이 기사는 법무부 발간 '2017 법률홍닥터 우수사례집'에 실린 실제 사례입니다.